동연, 선거공약 열린 공간 '여백' 개장

소극장, 쉼터로 활용…공간숨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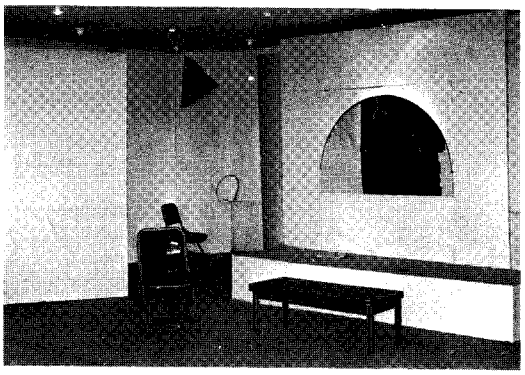
단대 문화패 수용 과제로 남아

소극장을 겸한 쉼터가 학내에 마련된다. 동아리 연합회는 별다른 용도 없이 놀리던 학생회관 4층의 방 하나를 새롭게 단장, 오는 20일경 개장할 예정이다.

새로운 쉼터의 이름은 열린 공간 '여백'. 25평 규모에 좌석 40여개가 놓일 예정인 '여백'은 평상시에는 자판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쉼터로, 연합 동아리의 공연이 있을 경우엔 무대를 마련해 소극장으로 활용된다.

학내에 이러한 공간이 마련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학문화가 얼마나 건조하고 황락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연 회장 이태석(법학·3)군은 "7, 80년대 지여문화를 선도하던 대학문화가 90년대 들어 상업주의의 주변문화에 오히려 흡수되고, 대학문화를 이끌던 동아리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단계의 대학문화를 진단했다. 아울러 이태석 회장은 '여백'이 "굳이 외부의 커피숍을 출입할 필요 없이 학생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고 장소가 없어 공연을 못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연집행부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이번 사업은 일단 연합 동아리의 환영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경희 사진 연구회(KHPC) 회원 이선형(미교·2)양은 "비가 오면 전시를 하지 못했는데 '여백'은 이러한 불편을 상당히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새로운 전시장이 마련된 것을 반겼다. 또 댓바람 회장 박민석(경경대 무역·2)군도 "1학기때 크라운관을 먼저 예약했는데도 단대 행사에 밀려 공연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 '여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일쯤 개장되는 '여백'. 마지막 세부장식이 안태 아직은 좀 낯설고 스산하다.

그러나 연합 차원이 아닌 단대나 학과 단위의 문화패들은 '여백'이 기대감만 높여줬을 뿐이다. 신방과와 국문과 등의 공연 협조 의뢰를 집행부가 거부한 것이다. 집행국장 고영재(정외·4)군은 "연합 동아리를 우선할 수 밖에 없으므로 무분별한 신청을 현재로서는 받아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단대나 학과 단위의 행사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행부의 계획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연합 동아리 회장단 모임인 대표자 회의에서 봉과되어야 하므로 '여백'에서의 비공연 문화패 공연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여백'이 학생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의문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여백'을 운영할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4층에 위치한 조건도 불리한 요소이다.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 4층까지 올라가서 커피를 마실리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자판기와 이용 학생들로 굴러갈 '여백'이 다양한 음식을 파는 기존 매점 이상의 역할을 할것으로는 보이지 않는것이다.

집행부는 '여백'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 4백만여원의 돈을 들였다. 거리문화제 등의 행사를 통해서 마련한 1백만여원과 동연에 배정된 자치회비 등을 떼고서 전 집행부의 장학금을 들이붓고 사비를 털어 마련했다.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전 작업을 직접 했음은 물론이다.

열린 공간 '여백'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여백'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는 두고봐야 알 일이지만 크라운관을 빌리려면 전쟁을 치뤄야 하는 현실에서 문화패의 숨통을 트여주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백이 진짜로 좋은 문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집행부의 고민이 있어야겠지만 일반 학생들의 애정과 관심이 그것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므로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열린 공간 '여백'에 담긴 의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열린 공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경희 학우면 누구나 찾아가서 '여백'을 같이 채운다면 대학의 문화도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이태석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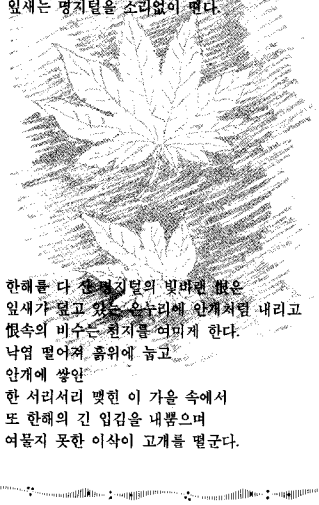
〈김중석 記者〉

제4회 대학주보 시문예 입선

낙엽 뒹구는 가을 속에서

송 태 문(경영·2)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나무의 영혼속에
하루와 한해의 생을 뽀얗게 쌓아본다.
빠 펴지 못한 잎새의 꿈들이
길 위를 덮어 먼지속에 뒤섞이고
뒤섞인 잎새위로 무서리 자리를 잡는다.
무서리의 시퍼런 추위를 실핏줄에 느끼며
잎새는 명지털을 소리없이 떤다.



한해를 다 살려지털의 빛바랜 恨은
잎새가 덮고 있는 울타리에 안개처럼 내리고
恨속의 비수는 천지를 여미게 한다.
낙엽 떨어져 흙위에 눕고
안개에 쌓인
한 서리서리 맺힌 이 가을 속에서
또 한해의 긴 입김을 내뿜으며
여물지 못한 이삭이 고개를 떨군다.

새로 나온 책

김재홍교수 '한국 현대문학의 비극론'

프로문학 민족주의문학 포괄

한국문학의 특징을 말하라는 주문을 받으면 우리는 흔히 '한'이라고 답한다.

김재홍(문리대 국문)교수가 이번에 펴낸 '한국현대 문학의 비극론'은 바로 외세침략과 일제 강점, 분단과 전쟁, 군사 독재 등 끊임 없는 시련의 시기동안 운명론적 비극성을 가장 첨예하게 읽어낸 시인들에 대한 평론집이다.

이번 평론집은 30년대의 프로문학과 민족주의문학을 포괄하는 등 납북한의 문학을 동시에 논의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 4부로 꾸며져 있는 이책은 1부에 '우리 문학속의 백두산'이라는 부제아래 북한 최대의 서사시로 불리는 조기천의 '백두산'과 민주항쟁에 몸을 바쳐온 고은의 '백두산'에 대한 비교논의를 실었다. 김교수는 조기천의 '백두산'에 대해 민족의 수난과정과 그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과정을 비교적 큰 스케일로 다룸으로써 민족적 수난과 고통의 극복 및 새 조국 건설을 향해 민중의 역동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해방공간의 전환기에 충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고 평했다. 또한 고은의 '백두산'에 대해서는 남쪽에서는 전무하다 할 항일 무장투쟁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분단극복을 통한 통일지향 문학의 큰 실마리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백두산은 이땅 시사시의 한 분수령이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부에서는 소설 '낙동강'의 조명희, 농민시의 개척자 박아지, 정노풍, 임화 등 주로 프로문학 계열 시인중 불우하게 살다가 삶을 마친 시인들을, 3부 '문학과 생명·고향·예술의식'에서는 한용운, 김소월, 정지용, 김영랑, 백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저자인 김교수는 '결국 문학이란 역사속에서 바람직한 삶을 향해 부단하게 싸워가는 인간회복의 길이며, 비극적인 운명의 극복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려는 생명, 사랑, 인간사랑, 자유사랑의 길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시와 시학사/9천원

노래패 '꽃다지'이름 혼란

공연주체와 공연제목 헷갈려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의 '93노래판굿 꽃다지'와 꽃다지의 '동지'.

나소 혼란을 일으키는 두 공연이 비슷한 시기에 본교 노천극장과 세종대 대양홀에서 열린다.

꽃다지는 노래패의 이름이며 92년 제1회 정기공연 '좌표, 1992'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 정기공연을 '동지'라는 이름으로 선보인다. '93노래판굿 꽃다지'는 노래패, 풍물패, 춤·율동·연기패, 미술패로 구성된,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 산하 '93노래판굿 꽃다지' 기획단에 의해 공연되는 공연 제목이다. 노래를 맡은 공연단이 또한 꽃다지이다. 결국 꽃다지라는 노래패가 독자적으로 '동지'라는 노래 작품을 세종대에서, 극단현장, 풍물패 터울림, 정태춘 등의 가수와 어우러져 '93노래판굿 꽃다지'(이하 노래판굿)라는 종합 예술 작품을 본교에서 공연하는 것이다.

본교에서 열리는 노래판굿은 노동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노동법 개정 연기에 대항하는 출정식의 의미를 지닌다. '동지'는 조민하씨의 '전화 카드 한장' 등 꽃다지의 2집 신곡이 선보이다.

노래만을 조용히 감상하고 싶다면 오는 11일 오후 4시·7시, 12일 오후 5시에 세종대 대양홀로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한판 굿을 보고 싶다면 18일 오후 5시 본교 노천극장으로 가면 되겠다.

노래 — 세종대, 한판굿 — 본교

야쿠트족 유물 1백여점 들여와

박물관 10월 중순 시베리아관 개관

박물관(관장 김태곤 국문교수)은 지난 2월 중앙시베리아 야루티아 공화국으로부터 역사, 민속 자료 52점을 들여온데 이어 지나달 8월 108점을 새로이 들여왔다. 이번에 들여온 의복, 신, 활촉 등의 자료는 11~19C 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것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김태곤 박물관장은 "이번에 유물을 마저 들여놓음으로써 생활및 산업실, 종교실, 예술및 의상실을 갖춘 시베리아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고역사관, 민속관에 이어 10월 중순경 시베리아관 개관으로 본교 박물관은 인류문화사 박물관의 위용을 갖추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Yakut족 신부의 속옷

한편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시베리아관 개관을 기념하여 '제2차 대륙문화 국제 학술회의'가 본교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일본 등 외국 학자 30여명과 국내학자 20여명이 참가할 예정인데, 김태곤 박물관장은 '한국민속과 북방대륙민속의 동질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다.

시베리아관 개관 준비작업으로 2학기 정기개관은 10월 중순 이후로 늦춰진다.

〈김중석 記者〉

럭키금성의 실체변혁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법

경영이념의 실천을 위해
약속이행을 스스로 점검하고,
행동규범을 정해 지켜나간다.

"처칠의 금연비결"

처칠의 금연비결
지난번 공초도 말씀한 선 (前) 영국 수상 처칠에게는 시가에 얽힌 에피소드가 많다. 한번은 처칠이 주위 사람들에게 금연을 선언했다. 모두가 하루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예상외로 그는 완전히 끊고 말았다. 그 뒤 처칠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한다. "다시 피우고 싶을 때마다, 사람들과의 약속을 생각했다. 이 처칠이 의자가 약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약속한다.
나는 그동안 사회와 고객, 그리고 우리 사원들에게 내가 솔선하여 자율경영을 실천하고,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저들 약속을 해왔다. 물론 이 약속들은 처칠의 경우처럼 나의 의지가 어떤 유혹이나 장애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 자신을 얽어매기 위한 것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리더십성의 양보를 생각할 때 이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다행히 이러한 약속들은 자칫 흔들리게 될지도 모를 나의 의지를 항상 새롭고 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약속이행의 점검법
나는 매스컴이나 강연들을 통해 밝힌 약속의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몇가지 정례적인 적자를 계속해 오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번 정기평으로 비전 선행 성취은 절차의 평가하여 사장들과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인데, 이 평가 항목의 1순위는 바로 회장인 나 자신의 혁신의지, 솔선수범의 실천도, 일관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로이 평가표를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혁한다.

경영이념 실천을 위한 행동규범
아무튼 작년 12월, 비전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지 3년째를 맞는 럭키금성은 아직도 아픈 속에서도 사업 추진과 조직 활성화 추진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지난 '90년 2월에 발표한 경영이념을 어떻게 하면 사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실천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행동규범을 제정해서 이를 통해 경영이념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

바람직한 행동규범의 조건
"지난해 행동규범이란 고객이 기대하고 있는 바람직한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겉은 고운 말이나 그 말함시킨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가 나타나야 할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을 선별하여 여기에 개선 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장단회의에서 다섯 가지의 그룹 공통 행동규범을 제정,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첫째가 '고객이 원하는 것을 개발하고 실천으로 응답하자', 둘째 '도전없이 성공없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도전하자', 셋째 '안 되는 이유보다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넷째 '정직을 생존 하자. 정직이 선배라서 하는 것이다', 다섯째 '원칙은 내가 먼저, 상대는 그 다음 먼저 주자' 앞서 이어 각 회사의 부서와 개인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절차를 걸쳐 '회사 공통 행동규범', '부서 행동규범', '개인 행동규범' 을 만들어 실천하기로 했다. 그 결과 실제 사원들의 행동에 많은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직하지를 통해 애쓰면서 얻어 더 느어났고, 이익을 얻기 더 내밀고 하는 가시적인 성과보다 경영이념과 행동규범을 실천하는 사원들이 늘어나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과가 내게는 훨씬 더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구자경회장 저 (오직 이 심밖에 없다) 중에서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